

지역전통의 활성화와 이벤트관광

-영암 구림리 왕인문화축제를 사례로-

추 명 회*

최근 한국의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전통과 문화적 자산 등이 재발견되고 자원화됨으로써 이들 이벤트관광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해당지역내 독특한 지역전통과 문화적 자산 등을 축제주제로 부각시켜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이벤트관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영암 구림리의 왕인문화축제를 사례로 초기 왕인문화축제의 추진배경과 이후 현재까지의 성장과정을 축제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왕인문화축제는 1993년 제1회 왕인벚꽃축제의 5천만원 예산규모로 출발하여 2000년 현재 3억 4천 만원의 예산규모와 약 50만명이 방문하는 대형축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과 함께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1997년부터 '왕인박사추향대제'라고 하는 유럽들의 제사가 왕인문화축제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함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왕인박사와 관련한 축제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축제의 규모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변화는 왕인축제의 추진체계가 초창기(1993년~1996년)의 군서청년회에서 1997년 영암군으로 전면 이양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순수 민간주도형 지역축제로 출발했던 왕인문화축제는 그러나 1997년 영암군이 강력한 주도집단으로 등장하면서 축제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가 지역내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과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년 내내 축제 개최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민간주도의 상설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총체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환경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내 역량있는 문화단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지역전통, 이벤트관광, 지역축제, 성장과정, 활성화

1. 서론

1) 연구목적

어떤 특정 장소(place)는 그것이 갖는 독특한 매력요인(attraction) 때문에 외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평가는 장소의 매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관광객들은 각 장소가 갖는 다양한 매력요인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관광활동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매력요인이 작용한다. 이러한 매력요인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 쇼핑센터, 문화·민속적 자산, 오락 및 유흥시설, 스포츠 경기장, 축제 및 특정 이벤트 기회, 건물·기념비·조각품, 기타 등이 있다(Kotler, Haider and Rein, 1993). 이 중에서 최근 관광활동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벤트 관광¹⁾과 관련된 주요 속성은 다양한 축제 및 이벤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강사

지역전통의 활성화와 이벤트관광

트 기회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벤트관광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적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구조의 재편과 지방자치제의 실현 등으로 인한 각 자치단체들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했고, 수도권과의 지리적 원격성 및 관광 관련 허부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광개발이 상대적으로 지연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구조적 속성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지역내로 유인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전남지역의 관광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비해 낙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 등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자본유치와 지역상품의 판촉을 위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 광고행사가 지방행정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은 핵심적인 지역정책과제로서 지역이미지 제고 전략과 같은 경제적 문화전략²⁾을 지역정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주·전남의 지역정책의 변화는 지역이미지 통합과 전통문화 및 여가의 새로운 상품화 전략을 통해 자본유치를 위한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고, 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장소의 상품화·차별화 전략으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의 이미지 전략은 CI(City Identity)을 통해 이미지 상품화와 정체성 운동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장소 이미지로 외부수요를 유치하고, 지역생산품의 수요를 증대시키며, 지역민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와 통합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의 각 시군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홍보, 지역민의 통합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축제나 이벤트를 개발하여 2000년 현재 전남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는 총 34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진도의 영등제, 순천 낙안읍성의 남도음식축제, 영암의 왕인문화축제 등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내 특정 장소로 관광객

들을 유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전남 영암군 구립리는 왕인문화축제의 개최를 통해 왕인을 기리는 지역내 독특한 지역전통을 축제 주제로 부각시켜 이를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된 마을 주변 유적지 정화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홍보와 더불어 지역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왕인문화축제는 영암군 구립리 성기동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백제의 현인 왕인을 기리는 추모제와 지역내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결합된 전남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중의 하나이다.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영암군 군서면 구립리 일대는 축제 개최시기에 만개하는 뱃나무 길과 월출산이 어우러지는 장소적 매력요인이 왕인의 탄생설화와 결합되어 외부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왕인은 백제사람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고대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어 왕인문화축제를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왕인문화축제가 갖는 잠재적인 관광자원성과 장소적 매력요인은 1999년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 2000년 전국 12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이벤트관광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왕인문화축제의 이러한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왕인문화축제의 초기 성립배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축제내용을 비롯한 축제추진체계 등의 변화로 인해 왕인문화축제가 구립지역에서 완전하게 뿌리내리기에는 아직 미약한 점이 많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왕인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구립리의 독특한 마을 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고, 이를 왕인문화축제로 관광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 지역민과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간의 미묘한 대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지역전통과 문화적 자산 등이 재발견되고 자원화되면서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이벤트관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왕인문화축제를 사례로 영암 구립마을의 유교문화 전통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초기 왕인문화축제의 추진배경과 이후 현재까지의 성장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첫째, 영암 구립마을 지

역전통의 축제화 배경과 관광지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구림마을의 유교문화 전통이 왕인문화축제 속에 흡수되면서 나타난 축제의 변화양상을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개최된 왕인문화축제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왕인문화축제의 문제점과 영암군 구림리의 독특한 지역전통이 축제를 통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조사 및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의 통계자료도 활용하였다. 왕인문화축제의 유래 및 추진배경에 관한 자료수집은 현지조사 및 각종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토대로 수집하였고, 1993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왕인문화축제의 성장과정과 특성은 통계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과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관광객 설문조사는 2000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왕인문화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작년(1999년)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1999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왕인문화축제 관광객 분석을 시도한 이장주의 연구성과를 원용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응답한 설문지 중에서 통계분석에 유의한 188명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관광객의 관광세력권과 평가분석을 행하였다.

2. 구림마을 지역전통의 축제화 배경과 관광지적 특징

1) 왕인문화축제의 유래 및 축제화 배경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영암군은 우리 나라의 서남단, 전남의 서부해안 중앙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지역의 중심하천인 영산강의 하류부를 사이에 두고 북서부는 무안군과 북동부는 나주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동부는 장흥군과 강진군, 남서부는 해남군과 접하고, 서단의 삼호면은 목포시와 인접해 있다. 영암군의 면적은 523.59km²,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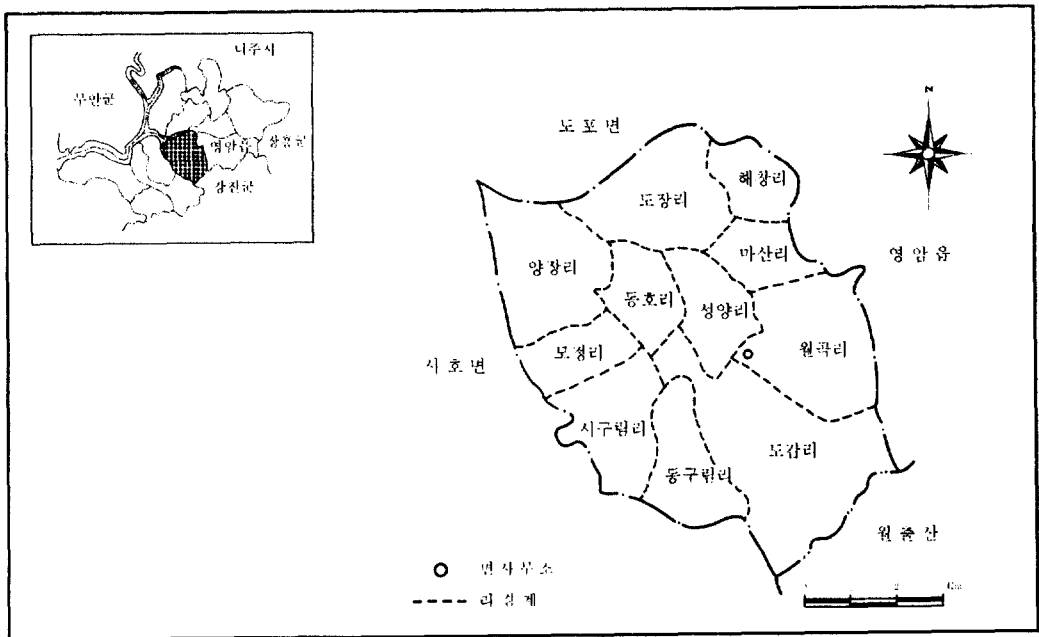


그림 1. 영암군 구림마을 개관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목포와 25km, 광주와 50km, 나주와 2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왕인문화축제는 1993년부터 매년 음력 3월 초,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추어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 성기동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왕인문화축제는 1987년 준공한 왕인사당에서 열리는 제사를 시작으로 월출산 바우제, 봉화놀이, 민속놀이, 국악경연 등 여러 행사가 4일간 계속된다. 구림마을은 월출산 서쪽 셋봉인 주지봉에서 내려선 나지막한 구름을 기대고 자리잡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림마을은 영암군의 중앙에 있는 군서면 중심마을이다. 동쪽은 도갑리 죽정동네이고 서쪽은 백암동 건너 학산천이 흘러 서호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은 '배척골'이 끝동네이고 북쪽은 백암동이 모정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1).

예로부터 고대 중국과 일본을 왕래한 무역항이었던 구림마을은 신라시대부터 명촌이라고 사서에 기록되는 마을이다.³⁾ 그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이 마을은 왕인 뿐만 아니라 도선의 출생과도 관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영암 사람들은 '백제 때는 왕인⁴⁾을, 신라 때는 도선⁵⁾을 낳은 곳이 영암'이라고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림리 성기동 일대에 전해지는 왕인과 도선의 이러한 탄생설화는 구림사람들에 의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고, 왕인의 탄생지가 성기동이라는 주장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살찌게 한 왕인의 탄생지가 영암 구림이라고 하는 주장이 먼저 일어났고, 이를 기회로 왕인 유적의 정화는 시작되었다.⁷⁾ 왕인 유적지는 1974년 10월 왕인박사 유적에 관한 종합조사가 왕인박사 현창협회 회장인 이선근 교수를 단장으로 7명의 조사위원들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고, 1976년 9월에는 전남도에 의해 지방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1년 7월에 국립광주박물관장인 이을호 박사를 중심으로 14명의 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왕인박사의 유적 및 위업에 관한 학술대회가 백제왕인연구소 주최로 열리기도 했다(향토문화진흥원, 1992, p.86).

그러나 일부 학자들의 왕인박사 선양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왕인의 영암 탄생설에 대한 확

실한 논증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된 왕인박사유적지 정화사업은 도선국사와 관련한 지역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왕인박사유적지 정화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영암 출신 전석홍씨가 전남지사로 부임한 후 전라남도가 주체가 되어 사당(祠堂), 강당, 내삼문(內三門), 외삼문(外三門), 문산제(文山齋), 양사제(養士齋) 등의 복원공사에 착수하면서부터이다. 1996년 현재까지 14,250평의 규모에 소요사업비는 복원공사를 비롯하여 주차장, 왕인동산, 전망대, 상대포구와 누각 사업 등 총 113억 여원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왕인박사 유적지 정화과정은 영암이 왕인출생지로 알려지고 나서 이를 문헌을 통해 밝히려는 작업은 나중에 진행되었고, 구림의 성기동이 왕인유적지로 지목되고 난 이후에 이를 확인하는 조사가 행해진 셈이다.

한편, 1987년 왕인박사 유적지 준공과 일련의 정화사업을 계기로 현재 왕인문화축제의 모태가 된 왕인박사춘향대제(王仁博士春享大祭)가 1986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왕인박사춘향대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역축제가 아닌 조선시대 이후 전통적인 구림마을 유림들 중심의 배향제(配享祭)였던 것이 확대 개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인박사춘향대제가 지역축제화된 것은 구림마을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1993년 왕인벚꽃축제였고, 4년 후인 1997년에 와서 현재의 '왕인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왕인문화축제의 전신인 왕인벚꽃축제는 1994년 1월 군서청년회 창립과 더불어 청년회의 자체 사업 중 가장 큰 행사였다. 이는 특히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관광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지역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 왕인벚꽃축제는 다분히 구림마을 중심의 마을행사의 성격이 강해 왕인박사 이미지를 상징화시켜 영암군 전체의 지역홍보와 지역관광의 활성화의 목적보다는 면민 단합의 체육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민 단합 목적이 축제의 가장 큰 추진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진배경은 1997년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우수기획축제로 선정되면서 축제의 추진체계가 군서청년회에서 영암군으로 전면 이

양됨에 따라 지역이미지홍보와 지역관광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변화되었다.

2) 구림마을의 관광지적 특징

영암군은 전남의 서남단과 중앙지역의 중간적 역할을 해주는 지역으로 영산강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의 명산으로 꼽히는 월출산을 중심으로 여기서 발원한 작은 하천들이 영암만(靈岩灣), 도포만(都浦灣), 남해만(南海灣) 등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주위에 자그마한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영산강 하구 언 공사로 해안선이 감소했지만 선사시대에 있어서는 자연 그대로 굴, 대합, 조개, 꼬막 등의 패류와 농산물이 풍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도포만의 덕진(德津)나루는 옛부터 전해오는 훌륭한 포구로서 영산포, 범성포와 함께 전남지역의 관문 역할과 무역항구로서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곳으로부터 일찍이 화남(華南) 지방이나 남방(南方)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영암지역이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 볼 수 있다(왕인문화연구소, 1986, p.18).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영암군은 영산강 유역의 선사문화와 관련된 고인돌과 옹관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구림리에서 출토된 청동제 거꾸집, 서호면 장천리의 청동기 시대의 마을터와 약 830여 기에 이르는 고인돌 등 다양한 선사유적지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남북국시대(7~9세기)의 대규모 도기 제작장으로 1987년에 발굴되기 시작한 사적 제 338호 영암구림도기 가마터⁸⁾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유산을 접할 수 있는 군서면 구림리의 도감사⁹⁾와 왕인박사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영암군에는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적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표 1).

특히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군서면 구림리는 영암군의 풍부한 문화적 관광자원과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축제가 열리는 4월에는 많은 외부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구림마을이 갖는 장소적 매력요인은 우선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는 동안 중국과 일본을 왕래한 무역항이었다는 점과 백제사람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활약한 왕인과 신라 말 도선국사의 탄생설화를 간직한 수려한 풍광의 고촌(古村)이라는 점이다.

표 1. 영암군의 주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명칭	자원현황	비고
월출산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	월출산 국립공원	천황봉, 향로봉, 사자봉, 구정봉, 경포대, 칠치폭포, 바람폭포, 구름다리, 집단시설지구, 산악경관	30만명/년 방문
	도감사	해탈문, 동자상, 석조여래좌상, 지방문화재	9만명/년
	천황사	대웅전터, 목탑지	17만명/년
	성기동 국민관광지	모험놀이시설, 전망대, 야영장 등	10만명/년
	영암온천	지하 1층 지상 7층 59실 규모	
문화유적	마애여래좌상	월출산 구정봉 아래에 위치	국보 144호
	영보정	인근에 최성호 가옥, 양암정 등 문화재 입지	지방기념물
	왕인박사유적지	탄생지, 석인상, 책굴, 상대포, 문산제, 양사제 등	지방기념물
	시종고분군	내동 쌍무덤 3기, 장동 방대형 1기 등	문화재자료
	선사주거지	수혈식 주거지, 고상가옥지, 전서관 1동, 지석묘	기념물
영산호, 내수면 및 주변지역	구림도기 가마터	도기문화센터, 도기공방, 도시문화예술관 등	사적 제338호
	영산호 국민관광지	영산호, 배수갑문, 백조공원, 영산강 하구언 등	100만명/년
	농업박물관	재래농기구, 영산강개발실태, 특산품	12만명/년
	내수면 낚시터	영산호, 화파1·2저수지, 청룡제 등	

자료 : 영암군, 1996,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p. 24.

지역전통의 활성화와 이벤트관광

도갑사에 이르는 길목의 구림마을은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조선시대 우리 나라 향약의 대표적인 모습을 전해주는 400년 역사의 '구림대동계'와 그 모임의 집회소였던 '회사정(會社亭)'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구림마을의 유교문화 전통과 1987년 왕인박사 유적지 준공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왕인문화축제는 매년 4월 초순 벚꽃개화시기에 맞춰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영암군을 방문하는 월별 관광객의 현황(1998년 현재)을 보면, 전체 관광객의 50% 이상이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4월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4월 초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와 도갑사 일원의 역사 및 문화유적을 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왕인문화축제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인 왕인박사 유적지는 1987년 완공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99년 현재 총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2-2).

큰 축으로 다양한 민속공연과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행사는 왕인박사 도일(渡日)을 재현하는 가장행렬과 당시 일본에 전수했던 도자기, 종이, 천자문 등을 주제로 펼쳐지는 주제별 행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상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주제(Theme) 개념을 프로그램 구성에 도입시켰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총 39개 프로그램을 각 주제와 부제에 맞춰 축제 일정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각 축제 일정별로 살펴보면, 축제 첫째날을 '소리(音)의 날'로, 둘째날은 '역사(流)의 날'로 정해 가야금 산조와 병창, 장부질 노래, 도포제줄다리기, 정동정호제, 월출산 바우제 등 다양한 민속공연 및 전통민속놀이가 행해진다. 셋째날은 '종이(紙)의 날', 넷째날은 '흙(土)의 날'로 정해 체험! 한지뜨기, 지승·색지공예 전시회, 한일종이교류전, 영암도기특별전, 현장체험 도기제작 등의 주요 행사가 행해졌다(표 2).

그러나 2000년 들어 새롭게 시도한 프로그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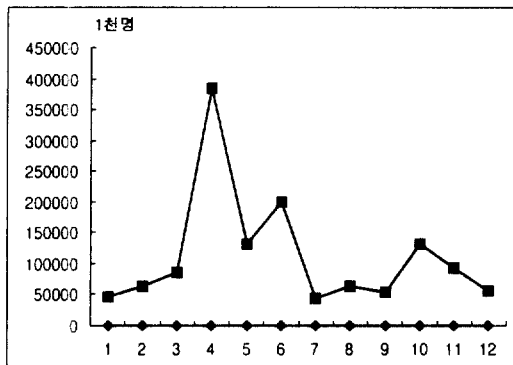


그림 2-1. 영암군 월별 관광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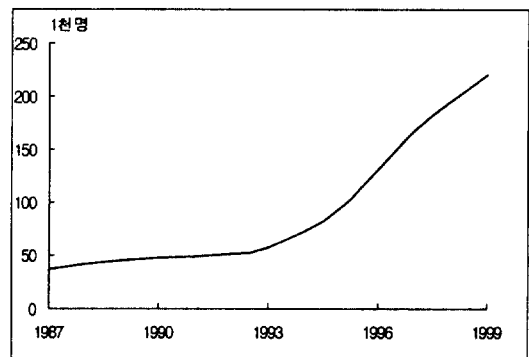


그림 2-2. 왕인유적지 관람객 현황

3. 왕인문화축제의 성장과정

1) 축제 프로그램의 변화

왕인문화축제 프로그램은 왕인박사 유적지 사당에서 '왕인박사추향대제'라고 하는 유림들의 제사를

주제개념 도입은 그 의도에 비해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주제의식과 연계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왕인의 업적과 의미를 지나치게 상징화시켜 '音', '流', '紙', '土'라는 다분히 관념적인 문화컨셉이 실제적인 행사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축제의 현실감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고 누구

표 2. 왕인문화축제 프로그램 내용(2000년)

축제일정	프로그램 내용
소리(音)의 날 (4월 9일)	1) 왕인박사추향대제 2) 왕인기자굿 및 정동정호제 3) 개막길놀이 4) 영암문화학교 공연 5) 가야금 산조,병창 6) 왕인박사일본가요! 7) 광명농악 8) 도포제줄다리기 9) 장부질 노래 10) 고향의 밤 11) 왕인가요제(1차) 12) 왕인후예선발(1차) 13) 개막식
역사(流)의 날 (4월 10일)	1) 군민의 날 기념식 2) 도포제 줄다리기 3) 월출산 바우제 4) 농악경연, 줄다리기 5) 군민체육대회 6) 도립국악단 공연 7) 청소년 어울마당 8) 정동정호제 9) 장부질 노래 10) 왕인후예선발(2차) 11) 왕인가요제(2차)
종이(紙)의 날 (4월 11일)	1) 화전놀이 2) 왕인학생선발대회 3) 여석산 천지북놀이 4) 국악경연 5) 영암문화학교 공연 6) 왕인후예선발(3차) 7) 왕인가요제(3차)
흙(土)의 날 (4월 12일)	1) 초중고 사물놀이 공연 2) 영암문화학교 공연 3) 도기경매 4) 여석산 천지북놀이 5) 왕인후예선발 결선 6) 왕인가요제 결선 7) 폐막식
기획행사	1) 도전! 천지문 250계단 2) 현장체험 영암도기 제작 3) 체험! 도포제 줄다리기 4) 체험!한지뜨기, 지승·색지공예 5) 왕인학문의 길 탐방 6) 창작 연날리기 7) 종가대표 음식전 8) 한일 종이교류전 9) 영암도기 특별전 10) 아마추어 무선국 11) 흙의 예술제

자료 : 영암군청 문화공보과

나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기 왕인문화축제의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 보면, 최근 프로그램 성격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1997년 왕인문화축제로 확대·개편되기 전인 1993년부터 1996년 4회까지의 왕인벚꽃축제 프로그램을 보면, 왕인박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무했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행사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행사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7년 제5회 왕인문화축제로 확대·개편되면서 지역내 유림들의 배향제였던 왕인박사추향대제가 핵심적인 축제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었고, 군민의 날, 벚꽃축제, 월출산 바우제 행사 등이 왕인문화축제로 흡수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1996년까지 군서청년회가 주축이 되었던 추진체계가 1997년 5회부터 영암군으로 전면 이양되면서 축제의 내용 및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때부터 '왕인'이라는 인물이 지역축제에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역사적 인물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왕인박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일본관광

객들을 유인하는데 왕인문화축제가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왕인문화축제 프로그램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7년 5회를 맞이하면서 왕인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인문화축제가 1997년 문화체육부 '97우수기획축제로 선정되고, 왕인과 관련된 지역내 행사와 외부 관광객들을 겨냥한 기획행사들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된 것으로 풀이된

표 3. 왕인문화축제 프로그램 변화

프로그램 개최년도	유형별 프로그램(단위: 개)			계
	전시판매형	공연관람형	참가형	
1994(2회)	2	7	-	9
1995(3회)	1	7	-	8
1996(4회)	3	8	1	12
1997(5회)	7	19	1	27
1998(6회)	6	24	-	30
1999(7회)	6	23	6	35
2000(8회)	8	25	6	39

자료 : 영암군청 문화공보과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다. <표 3>을 보면, 추진체계의 변화와 왕인관련 지역내 행사들이 흡수·통합된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을 겨냥한 참가형 프로그램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2) 축제 규모의 변화

일반적으로 축제의 규모는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및 참가인원의 변화를 통해 내적·외형적인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는데, 특히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가 다른 예산규모의 축제들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1990년대부터 개최된 지역축제의 예산 규모는 5천만원 미만이 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인 예산규모로 볼 때, 전남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의 지역축제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다양한 규모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pp.107-111).

2000년 현재 8회를 맞이한 왕인문화축제의 예산 규모는 2000년 현재 3억 4천만원 정도로 규모면에 있어서 대형축제에 속한다. 왕인문화축제는 1회 왕인벚꽃축제 당시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축제로 시작하여 1997년 현재의 왕인문화축제로 확대되면서 그 규모 또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축제예산은 크게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왕인문화축제는 1997년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97 우수기획축제, 전라남도 중점 육성 축제로 선정되면서 예산규모와 참가인원이 1997년을 기점으로 증가되어 2000년도에는 한국 12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그 규모면에 있어서 큰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개최되고 있는 우리 나라 지역축제는 예산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참가인원에 있어서도 소규모 축제가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p.111). 반면, 왕인문화축제의 경우, 참가인원이 1997년 30여만명에서 2000년 현재 약 50만명으로 나타나 참가인원의 규모면에 있어서도 대형축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예산 규모의

증가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예산확보의 증가로 인한 제반 여건의 향상이 참가 연인원의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요예산과 참가인원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왕인문화축제의 관광수익 현황을 보면, 향토음식 상가임대수입과 광고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주요 소득원으로 직접적인 관광수익효과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전남지역내에서 전국적인 지역축제로 성장한 진도 영등재나 낙안 남도음식축제의 경우, 입장료 수입과 주차료 수입, 축제상품판매 등으로 인해 높은 직접 관광수익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와 비교했을 때, 왕인문화축제에서 파급되는 직접 관광수익효과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수익사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4).

표 4. 왕인문화축제 규모의 변화

축제규모 개최년도	소요예산 (단위: 천원)	참가인원 (단위: 명)	직접관광수익 (단위: 천원)
1995(3회)	43,900	--*	50,260
1996(4회)	83,000	--*	102,600
1997(5회)	120,000	300,000	144,997
1998(6회)	176,404	350,000	200,000
1999(7회)	243,730	320,000	--*
2000(8회)	349,000	500,000	--*

* :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기재하지 못함
 자료 : 군서청년회 / 영암군청 문화공보과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3) 축제 주진체계의 변화

현재 왕인문화축제로 확대·개편되기 전인 최초 왕인벚꽃축제를 처음으로 발의한 곳은 군서청년회이다. 1993년 제1회 왕인벚꽃축제는 음력 3월 초 벚꽃개화시기에 맞춰 군서면 구림리 성기동 왕인박 사유지 일대에서 면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 중심의 행사였다. 따라서 현재 왕인문화축제의 전신이었던 왕인벚꽃축제는 군 전체의 지역행사라기보다는 군서면 구림리 일대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열리던 소규모 면민 화합행사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의 청년회 중심의 민간주도형 추진

체계는 1997년부터 영암군 주도의 지역축제로 전환되면서 축제명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그 규모면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 군서청년회 중심의 왕인벚꽃축제에서는 축제프로그램이나 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면민 체육대회와 구립리 일대 벚꽃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인박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전무했었다. 그러나 1997년 왕인문화축제에 처음으로 춘향대제가 주요 핵심행사로 흡수되면서 왕인과 관련된 행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립리 일대 유림들, 왕인벚꽃축제의 기득권을 가진 군서청년회, 그리고 왕인벚꽃축제를 군전체 행사로 보기 힘들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둘러싸고 군청과의 많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1996년 가을 군서청년회장, 군민들, 지역내 문화단체 등이 참여한 군민 자체 세미나를 통해 그 당시 17회째 개최되어오던 '군민의 날' 행사와 4회까지 개최된 '왕인벚꽃축제'를 통합해 현재의 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한다는데 최종 결의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현재 왕인문화축제의 주도집단은 1997년 이후 군서청년회에서 영암군과 왕인문화축제 추진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외형상으로는 민관결합형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축제의 기획 및 집행은 영암군청의 공무원들에 의해 거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축제와 관련된 위원회에는 각 방면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축제의 기본적인 기획주체나 실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해나갈 위원이 보장되는 경우는 드물다. 1997년 왕인문화축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축제추진위원회의 조직을 보면, 영암문화단체, 군서청년회, 지역내 자생단

체, 군청내 문화관계 부서, 의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이들 위원 중 위원장을 선발하는 형태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비사용의 투명성 여부와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결여 등이 제기되면서 올해(2000년)부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력한 관주도의 추진체제로 축제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지역축제는 이러한 관주도의 추진체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인력과 지역주민이 결합할 구조를 상실하는 경향이 크다.¹⁰⁾ 왕인문화축제의 지자체주도형 주체구성에서도 나타나듯이 갑작스럽게 구성되고 선정된 위원의 소속이 불분명하고 조직체계가 영성하여 축제의 기획 및 집행이 영암군청의 공무원들에 의해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암군청 공무원과 이벤트사가 기획을 담당하고 기획된 내용을 이벤트사가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축제 때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조직이 행사계획서를 심의, 검토하고는 있지만 축제전반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지원·인력지원의 대부분이 영암군청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축제 전개과정에서 민간 조직위원들보다는 군청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

축제의 기본계획안 수립에 있어서도 8회(2000년) 축제의 기본계획이 축제 3개월 전에서야 짜여졌고, 본격적인 준비기간은 한달이 채 못되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아직까지 상설화되지 못해 축제평가작업이 마무리되면 해산되었다. 이와 같이 축제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축제조직으로는 축제의 안정적 운영이나 지속적인 홍보, 장기적인 발전제

표 5. 왕인문화축제의 추진체계 구성변화

구 분		축제 주체구성	
		1993년~1996년	1997년~2000년 현재
발의집단		군서청년회	영암군 문화관광과
주도집단		군서청년회	영암군 +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축제 사무국	時空性	半상설적/군서청년회	임시적/영암군 문화공보과
	운영인력	군서청년회원	영암군청 공무원
	전담인력의 지속성	半지속적	단절적
기획 및 집행인력		청년회 + 기획사	공무원 + 기획사 + 추진위원

자료 : 군서청년회 및 문화공보과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작성함.

지역전통의 활성화와 이벤트관광

획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축제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1년 제9회 축제도 상시적으로 준비되기보다는 행사에 임박해 급하게 추진되어 준비미비와 비체계적인 진행이 도출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왕인문화축제의 축제사무국 역시 비전문적이고 문화예술행사 진행에 경험이 없는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국이 임시로 구성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공무원이 단절적으로 배치되고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전담인력의 노하우와 전문성 축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우리 나라 지역축제 대부분에서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통된 불만사항이기도 하다.

4) 축제관광객 분석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개최지역인 핵심시장, 근교의 지역권 시장(1일 여행권)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축제관광객의 공간적 분포는 축제의 관광세력권

설정과 그 성장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왕인문화축제 관광객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광주·전남'이 1999년(71.1%), 2000년(73.9%) 모두 가장 큰 관광객 시장으로 나타났고, 전남지역 내에서는 영암군과 인근 지역인 목포시, 나주시 등의 방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전남을 제외한 왕인문화축제의 타지역 관광객 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2000년 왕인문화축제에 새롭게 도입한 인터넷 홍보전략에도 불구하고, 축제 규모에 비해 전국적인 축제관광객 흡인력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왕인문화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자 관광객들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의 청장년층이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상이 대부분으로 직업은 전문사무직에서 주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왕인문화축제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보면, 자가용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대부분으로 관광객들의 축제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정보습득원은 '신문·잡지·TV 등의 광고'의 대중매

표 6.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관광행태적 특성

구 분		구성비(%)		구 분		구성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성 별	남자	52.7	55.3	직	농림수산업	12.5	7.4
	여자	47.3	44.7		사무, 행정, 관리직	20.3	30.3
연 령	19세 미만	6.5	2.7	업	판매서비스직	10.0	7.6
	20~29세	38.3	37.6		학생	22.6	20.7
	30~39세	24.9	27.4		전문직	13.6	9.6
	40~49세	13.3	20.4		자영업	10.3	10.6
	50~59세	9.7	8.6		가정주부	10.6	13.8
60세 이상	7.3	3.2					
거 주 지	영암군내 지역	16.7	17.6	방 문 동 기	왕인박사 유적지를 구경	2000년	
	광주·전남지역	71.1	73.9		민속예술공연을 구경	26.6	
	전남도 외부지역	12.1	8.5		영암 벚꽃거리를 구경	8.0	
정 보 습 득 원	TV, 신문 등의 매체 다른 사람의 소개 다른곳으로 가는 길목 기타	2000년		영암 토기유물 구경과 도자기구입	38.3		
		45.2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참여	1.6		
		30.3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	4.8		
		3.7		일상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16.5		
		20.7		친구나 친지의 권유로	2.1		
				기타	1.6		
					0.5		

자료 : 설문조사(1999년 자료는 이장주의 '99 왕인문화축제 평가보고서 결과를 인용함)

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동기를 보면, '영암 벚꽃거리를 구경하고 싶어서'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왕인박사 유적지를 구경하고 싶어서'(26.6%), '가족·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 왕인문화축제로 확대·개편되기 전인 1997년 이전 '왕인벚꽃축제'의 이미지가 관광객들에게 더 크게 남아 있고, 아직까지 '왕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이미지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4. 맺음말 : 왕인문화축제의 문제점과 전망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문화'와 '지방(지역)', '전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급증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문화전통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문화산업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과 수도권과의 지리적 원격성 등의 구조적 한계를 지닌 지역사회, 특히 전남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전남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시설 위주의 관광개발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전남지역 특유의 문화자원과 지역전통이 다양한 형태의 축제와 이벤트로 자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최근 지역전통과 문화적 자산 등이 재발견되고 자원화되면서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이벤트관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영암 구림리의 왕인문화축제를 사례로 초기 왕인문화축제의 추진배경과 이후 현재까지의 성장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암 구림지역의 다양한 지역전통과 관광자원, 그리고 축제의 성장과정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전망도 함께 살펴보았다.

왕인문화축제는 구림리 성기동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왕인탄생설화와 지역내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결합된 전남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중의 하나이다.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 일대는 지역 특유의 장소적 매력요인이 왕인 탄

생설화와 결합되어 외부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왕인문화축제가 갖는 잠재적인 관광자원성과 장소적 매력요인은 1999년, 2000년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왕인축제의 외연적인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왕인문화축제가 지역 내에서 완전하게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내적 환경구조, 즉 지역민 중심의 축제운영과 참여주체구조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왕인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구림리의 독특한 마을 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고, 왕인과 관련된 지역내 유교문화 전통을 지역축제로 관광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 지역민과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간의 미묘한 대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왕인문화축제는 1993년 제1회 왕인벚꽃축제의 5천만원 예산규모로 출발하여 2000년 현재 3억 4천만원의 예산규모와 약 50만명이 방문하는 대형축제로 성장했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과 함께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1997년부터 '왕인박사추향대제'라고 하는 유림들의 제사가 왕인문화축제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함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왕인문화축제 프로그램에는 왕인박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축제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구성에 결정적인 변화는 왕인축제의 추진체계가 초창기(1993년~1996년)의 군서청년회에서 1997년부터 영암군으로 전면 이양되면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재의 왕인문화축제의 전신인 왕인벚꽃축제를 처음으로 발의한 곳은 군서청년회이다. 초기 청년회 중심의 순수한 민간주도로 추진되었던 왕인벚꽃축제는 당시만 하더라도 구림리 성기동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면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 중심의 행사였다. 따라서 초창기 왕인벚꽃축제는 군 전체의 지역행사라기보다는 군서면 구림리 일대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열리던 소규모 면민 화합행사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의 청년회 중심의 민간주도형 추진체계는 1997년부터 영암군 주도의 지역축제로 전환되면서 축제규모와 축제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구림마을 지역전통으로 내려오던 유림들의 제사, 춘향대제가 주요 핵심행사로 흡수되면서 왕인과 관련된 행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지자체 중심의 축제 운영전략이었던 지역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목표와 맞물려 왕인 탄생설화를 중심으로 지역내 문화자원 및 장소의 관광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림리 일대 유림들, 군서청년회, 왕인벚꽃축제를 군전체 행사로 보기 힘들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둘러싸고 군청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은 1996년 가을 한차례의 주민 자체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만 무마되고 말았다.

현재 왕인문화축제의 외형상 추진체계는 영암군청과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민관결합형의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다. 순수 민간주도형 지역축제로 출발했던 왕인문화축제는 그러나 1997년 영암군이 강력한 주도집단으로 등장하면서 축제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가 지역내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과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민관혼합형 추진체계란 해당 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원과 같은 지역민간단체와 각 시·군청이 축제 주관을 함께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추진체계는 민간주도형이 갖는 추진력 및 자원조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편으론 관 주도성 행사로 인한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축제진행을 막기 위한 절충형의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추진체계에서 민간이 갖는 역할은 단순히 정해진 프로그램을 자문하는 요식적인 기구로써만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산집행과 행사기획과 같은 주도권은 군청이 맡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축제에 대한 지역문화단체의 다양한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축제 운영에서 지역문화단체들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암자치체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왕인문화축제의 창출은 외형상으로는 '영암군 지역이미지 고양을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와 '지역의 문화역량 확

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민선단체장이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영암군 지역문화자원을 확대하고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축제의 본질적인 성격인 문화적 측면, 즉 지역내 문화적 전통 및 다양한 문화자원이 육성되기 위한 지역문화적 네트워크는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경제적인 관점(즉, 관광수입 증대)만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축제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내적 조건, 즉 제도적·인적 조건의 열악함에서도 나타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체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문화업무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가 형성되지 않아 담당자들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나아가 독창적인 이벤트를 개발할 만한 행정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곧바로 축제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와 방문동기에 그대로 반영된다. 즉 1999년, 2000년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왕인문화축제의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관광세력권에서 광주·전남을 제외한 타지역 관광객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2000년 왕인문화축제에 새롭게 도입한 인터넷 홍보전략에도 불구하고, 축제 규모에 비해 전국적인 축제 관광객 흡인력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왕인' 탄생설화와 지역전통으로 내려오는 유림들의 제사를 각각 축제 주제와 중요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방문동기에서는 이러한 점보다는 '왕인박사춘향대제'라고 하는 본격적인 왕인 관련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의 축제 주제, 즉 '벚꽃축제'라는 장소적 이미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축제는 전문기술과 고도의 운영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기업의 협찬과 같은 효과적인 자원조달에 필요한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년 내내 축제 개최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민간주도의 상설기구가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설기구는 단순히 정해진 프로그램을 자문

하는 요식적 기구가 아니라 축제와 이벤트의 지역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행사기획과 예산집행의 권한 책임을 갖는 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기구를 토대로 할 때 축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타 지역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매력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왕인문화축제를 통해 지역의 총체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환경의 내적 성장을 위한 지역내 역량있는 문화단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왕인문화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판단된다.

註

- 1) 이벤트관광(event tourism)이란 문화관광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축제와 특별 이벤트를 관광 상품화하여 특정 장소(place)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개발·마케팅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벤트관광은 1970년대 이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지역활성화 전략(Getz, 1991; Patrick and Perdue, 1990; Getz and Frisby, 1998)으로서 지역내 관광자원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 지역 이미지 및 관광소득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관광정책이다. 이벤트관광이 갖는 경제적·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지역축제를 이벤트로 개발한 사례는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체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개최된 수많은 이벤트들은 관광활동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Gunn, 1988), 이벤트관광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Hall, 1992).
- 2) 본래 문화전략은 직접적인 생산요소로 도시회생을 가져 올 전망이 밝지 않은 지역에서 많이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양극화된 사회에서 중립적인 언어로 사회의 질서와 사회적인 다양함을 유지하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은폐하려는 정치적인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의도가 실패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신혜란, 1998)
- 3) 이중환(李重煥, 1690~?)이 쓴 『택리지擇里志(1719)』에는 '월출산 서쪽에 구림촌(鳩林村)이 있는데 신라 때부터 이름난 곳이다. 지세가 서남해와 서로 맞닿는 곳에 있어 신라가 당나라로 들어갈 때에 모두 바다에서 배가 떠났다'고 쓰여 있다.

- 4) 왕인은 일본의 옛 책인 『고사기(古事記)』에 와니키시(和邇吉師),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와니(王仁)라고 표기되어 있다. 711년에 펴낸 고사기의 내용을 보면, 405년(백제 아신왕阿莘王 14) 와니(和邇)가 논어 10권,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 와 백제의 경학을 전했고, 일본 응신왕(應神王)은 그의 학문에 감복하여 태자의 스승을 삼을 정도였으며, 대리고 간 대장장이와 베 짜는 기술자들도 여러 가지 기술을 전했다는 내용을 실고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729년)에서는 어느날 왕이 아직기(兒直枝)에게 물었다. "혹시 그대를 능가할 만한 학자가 있는가?" 아직기는 "왕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탁월한 학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이라타와케와 가무나키와케(巫別)을 백제에 보내 왕인을 모셔오도록 했다. 16년 2월 왕인이 도착했고 그는 곧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왕인의 자손들은 대대로 가와치(河内)에 살며 기록을 맡은 사(史)가 되었으며, 일본 조정에 봉사했다. 그의 무덤으로 전하는 묘가 오사카부(大阪府) 히라카타 시에 있어서 매년 11월 3일 '와니마쓰리(王仁祭)'가 열리고 있다. 이 묘는 오사카부 지방문화재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왕인을 모신 사당이나 절은 10여 곳에 달한다. 이러한 일본의 왕인에 대한 기록에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을 뿐 당시의 기록은 전혀 없다. 다만, 한치윤(韓致彥, 1765~1814)이 쓴 『해동역사(海東譯史)』에 일본문헌을 인용하여 왕인을 언급한 기록이 나오고, 1920년대 편찬된 『조선한여승람(祖先實與勝覽)』에 왕인의 영암 성기동 탄생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고작이다.
- 5) 도선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암군 고적(古跡)항목에 '최씨원崔氏園'이 나오고,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와 관련해 '구림'이란 동네이름이 비롯되었다고 적혀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옛날 통일신라시대에 월출산 밑의 한 마을에 최씨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산기슭 계곡의 샘에 갔다가 예쁘게 생긴 오이가 떠내려 와 이를 먹었다. 그런데 딸은 그 후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고 마침내는 한 사내아이를 낳게 되었다. 아버지인 최씨는 처녀가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았다고 화를 내며 아이를 동네 대숲에 내다 버렸다. 여러 주일만에 딸이 가서 보니 비둘기들이 감싸고 있었다. 돌아와 부모에게 고했더니 부모도 가서 보고 이상히 여겨 데려다 길렀다. 그 아이가 자라 큰 인물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도선국사였다'. 구림이라는 마을이름도 이런 연유로 생겼고, 이 같은 전설은 마치 실제의 상황인 것처럼 구림리 일대에는 그 현상들이 전해져 온다. 즉 도선의 어머니 최씨가 오이를 먹었다는 샘은 현재 새로 건립된 왕인 사당의 뒤쪽에 있는 성기동의 '聖基川, 聖泉'이

- 고, 그 밑의 기슭이 동국여지승람에 '최씨원'이라고 기록된 최씨의 집터이다. 아이를 버렸다는 바위는 현재 구림마을 남주 최씨들의 고려 초 인물 최지몽을 제향하는 사당 곁에 있는데, 속칭 '국사암'이라고 한다. 전설의 인물 도선은 나라에 동용되어 큰 일을 하였으나 모함을 받아 중국으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가 떠났던 포구며, 앉아 있던 바위가 구전으로 전해지기도 한다(이해준, 1995, 다시 쓰는 전라도 역사, 금호문화, p.42).
- 6) 왕인의 '영암 출생설'에 대한 국내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왕인의 '영암 출생설'은 절대적인 사실이므로, 단지 이를 증명할 문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전설과 유물·유적 등을 통해 점차 밝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왕인의 '영암 출생설'이 사실이면 아니건, 우리 문화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으며, 영암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지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셋째,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도선 관련 사료가 왕인에 관한 사실로 확대 윤색된 조각이라며, 왕인과 영암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거나, 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들 수 있다(김병인, 2000, 왕인의 '지역 영웅화'과정에 대한 문헌사적 검토, 호남문화연구원 집담회 발표논문, p.2).
 - 7) 1932년에는 영산포에 일본불교 선교차 와있던 아오키(青木)란 일본인 승려가 구림에 왕인동상을 세우기 위한 모금전단을 뿌린바 있다. 이후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김창수씨가 1973년 영암 구림촌에 왕인박사가 이곳 출신이란 말을 전해움을 듣고 언론에 소개했다(왕인과 도선의 마을 구림, 1992, 마을사리즈 1, 향토문화진흥원, p.90; 전라남도, 전남관광 명소화 소프트웨어 개발연구, p.120).
 - 8) 영암 구림도기 가마터는 좋은 질의 점토, 풍부한 열감, 운송이 편리한 뱃길 등 도기 생산지로 이상적인 여건을 갖추었던 남북국시대(7~9세기)의 대규모 도기 제작장이다. 이곳에는 당시의 도기 파편 퇴적과 10여개의 가마가 1km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1987년과 1996년 이화여대박물관의 발굴로 당시의 도기 가마가 보존되어 있다. 구림리 도기가마에서는 입넓은 큰 항아리, 사각병, 기름병, 단지, 시루 등 일상생활용기가 제작되었다. 한국도자기 역사에서 처음 시작된 녹색·흑갈색 유약이 입혀진 시유도기가 있다. 이것은 현대 웅기까지 이어지는 가장 강하고 오랜 도자전통이다. 시유도기인 구림도기는 전 세계에 그 예술성이 널리 알려진 일본의 시가리끼, 세도의 도기 보다 약 200~300년 앞선 것으로 그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높다(영암군, 문화공보과). 이러한 영암 구림의 도기가마터의 발굴은 왕인이 도일시 도공

등을 동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줌으로써 영암 구림이 왕인의 탄생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또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 9) 신라시대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고 고려말에 크게 번창하였다고 전해지는 도감사(道岾寺)는 경내에 국보 제50호인 해탈문을 비롯하여 보물 제89호인 도감사 석조여래좌상, 제1134호인 도감사 소장동자상 등 다양한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다.
- 10)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의 김준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2000년 왕인축제에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지역민의 57.1%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구림마을(60%)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는데 성공한 진도 영동계의 지역주민 참여율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영동계가 열리는 매년 음력 3월초가 되면 진도군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한층 고조되는데 이는 축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동원되는 인력이 바로 자신 또는 주변 친척, 그리고 이웃주민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민 자신들이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추명희, 1998, 이벤트관광의 성장과정과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 p. 118).

文獻

- 김병인, 2000, 왕인의 '지역 영웅화'과정에 대한 문헌사적 검토, 호남문화연구원 집담회 발표논문.
- 김영원, 1974, 박사 왕인에 대한 고찰, 왕인박사유적지 종합조사보고서, 왕인박사현창협회.
- 김정호, 1988, 월출산의 역사, 월출산-바위문화 조사, 광주민학회·전라남도.
- 김창수, 1975, 박사왕인 : 일본에 심은 한국, 창명사.
- 류우익, 1996, 지방화시대 농어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지리학 논총, 26.
-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6, 영암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 박물관.
- 문화체육부, 1996,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 신혜란, 1998, 태백, 부산, 광주의 장소마케팅 전략 형성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암군, 1981, 내고장 전통가꾸기.

- 영암군, 1988, **마을유래지**.
- 영암군, 1996,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영암군.
- 이무용, 1996, **도시개발의 문화전략과 장소마케팅**, 공간과 사회 8호, 한울, 서울.
- 이장주, 1999, '99 왕인문화축제 평가조사 보고서, 왕인문화축제 추진위원회.
- 이해준, 1995, **다시 쓰는 전라도역사**, 금호문화.
- 왕인문화연구소·전라남도·영암군, 1986, **영암 왕인유적지의 현황**.
- 전라남도, **전남관광 명소화 소프트웨어 개발연구**, 전라남도.
- 정근식, 1997, 지역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학교 출판부.
- 추명희, 1998, 이벤트관광의 성장과정과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 103-124.
- 향토문화진흥원, 1992, **왕인과 도선의 마을 : 구림**, 마을시리즈 ①.
- 홍성흡, 2000, 지역정체성과 지역정치: 전라남도 영암군 구림마을의 사례, 제32차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표인주, 2000, 인물전설의 전승적 토대로서 지역축제, **비교민속학회**, 18, 254-274.
- Getz, D. and Frisby, W., 1987, *Report on a Survey of Community-run Festivals in Waterloo*, Waterloo.
- Getz, D., 1991,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NR, New York.
- Gunn, C. A. 1988, *Tourism planning*, 2nd ed., Taylor and Francis, New York.
- Hall, C. M., 1992, *Hallmark Tourist Events : Impacts, Management and Planning*, Belhaven Press, London.
- Kotler, P., Haider, D. and Rein, I., 1993, *Marketing Places: Attracting Investment, Industry,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s*, The Free Press, New York.
- Patrick, L. and Perdue, R. R., 1990, The Economic Impact of Rural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Assessing the Special Distribution of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1), 10-14.

Revitalization of Local Tradition and Event Tourism

-In case of Wang-In Cultural Festival in Kurim-ri, Yongam-

Myung-Hee, Chu*

Summary

Recently, local traditions and cultural assets have been rediscovered and developed as resources in local societies of Korea and a great deal of effort has been made to develop event tourism. Based on this renewed interest, this study chose as a case the Wang In Cultural Festival in Kurim-ri, Yongam, and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early Wang In Cultural Festival and its evolution up to the present focusing on the festival program. In Cultural Festival first began as the Wang In Cherry Blossom Festival in 1993 with a budget of 50 million won, and has been developed into a large-scale festival with a budget of 340 million won, attracting 500,000 visitors in 2000. Together with such evolution,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in the organization and content of the Festival program. The most important change began in the 1997 which included a religious service for Confucian scholars called 'Chunhyang Grand Festival for Dr. Wang In' as a core program. Since then, festival programs related to Dr. Wang In have greatly increased in number. A decisive change became prominent when the festival promotion system was transferred from

the Kunseo Young Men's Association during the early period(1993-1996) to Youngam-gun in 1997. It is true that the Wang In Cultural Festival, which began as a purely regional festival initiated by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hanged a lot in terms of its scale and program when Youngam-gun emerged as a strong leading group in 1997. However, not enough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institutional devices and procedures that are required for the local culture to take a firm root in the community through the festival. Therefore, in order to solve such fundamental problems, a perman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s required for festival prepa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overall progress of the community and an increase in the quality of the cultural environment of the local society through the festival,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promote recognition of cultural groups in the community.

Key Words : local tradition, event tourism, regional festival, evolution, revitalization.

* 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